

한 학기 한 권 읽기

학생용

신화 속 주인공이
『미래로 소환되었습니다』
독서 지도안



작성 |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이 독서지도안은 책이라는신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gira_22



책 소개

◆ 지금 우리에게 도달한 타임슬립 앤솔러지 ◆

왕따 ■ 스트레스 ■ 학교폭력 ■ 성차별
요즘 십 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설의 신들이 학교로 찾아왔다!

신미유는 한껏 들떠 있었다. 신화여중 SNS 스타 조빈과 반려견 산책이라니! 조빈은 자신이 키우는 영국 왕실 개 '위시'의 사진을 올리며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미유는 이번 산책을 통해 조빈과 친해지고 싶었다. 그런데 빈은 제멋대로 라이브방송을 하더니 미유의 반려견 '점보'가 시골 잡종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 화를 낸다. 그 후 빈은 자신을 쪽팔리게 했다는 이유로 미유를 왕따시키고, 미유는 학교에 가기도 싫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미유 앞에 나타난 요괴 길달! 길달은 미유를 도와줄 수 있을까?

• 조영주 × 「999번을 죽어야 귀신이 된다」

부역의 불을 관장하는 신, 조왕신의 환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신화 관리청 소속 도채비 요원은 비공식 명령을 받고 급히 월령중학교로 파견된다. 환생한 조왕신의 스트레스 지수는 아무 이유 없이 높아지고, 도채비 요원은 원인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수색하다가 수상한 부분을 감지한다. 요원 중에서도 감각 좋기로 소문난 도채비. 그러나 도채비를 속일 만큼 뛰어난 존재의 등장! 데이터에 없는 상대방의 모습에 도채비는 당황하지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 정명섭 × 「신화 관리청-도채비 요원의 대모험」

얼마 전부터 발코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현후는 이 소리의 근원을 찾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남긴 유언을 떠올린다. “마라도에 가지 마라.” 엄마에게 물어보니 발코니에 있는 창고에서 아빠가 보관해 둔 상자를 열어 보란다. 현후는 그곳에 있던 메모를 읽고 점점 더 의문이 커졌다. 결국 연극 대본을 써야 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 민섭이와 함께 마라도로 향한다. 근데 이게 웬걸? 짝꿍인 해랑이가 거기 있는 것이다. 아니, 해랑이가 아닌가? 여기는 어디지? 가면 안 되는 곳에 간 현후! 과연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 이현서 × 「복수의 삼각형-안개 낀 섬의 초대」

고려시대, 흠추는 게 좋아서 당당히 8선녀에 지원해 합격한 최한비. 한비는 단군 성조의 합그릇을 받드는 역할을 하던 8선녀로 뽑혔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개천대제에서 성무를 추고 난 뒤 연회 자리에서 대감이 한비에게 수청을 들라는 게 아닌가! 한비는 단호히 명을 거절했으나 사건은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수령이 장검을 꺼내 위협까지 한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눈떠 보니 천 년 뒤 생전 처음 보는 곳에 와 있다?! 하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에 맞닥뜨리고, 한비는 용기를 내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 윤자영 × 「고려 걸그룹 잔혹사」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쪽수
1	독서 전	<p>요모조모 뜯어보기</p> <p>『미래로 소환되었습니다』를 읽기 전에 이야기 상상하기</p>	4
2		<p>책 놀이 하기 펼쳐라 책!</p> <p>책 놀이를 통해 소설 속 주인공 먼저 만나 보기</p>	6
3~4	독서 중	<p>「999번을 죽어야 귀신이 된다」</p> <p>1. 나의 이야기 저장소 2. '타임라인 그래픽 조직자'로 이야기 정리하기 3. 책 속 내용 확장하기 4. 연계 활동: 앞으로의 이야기</p>	8
5~6		<p>「신화 관리청-도채비 요원의 대모험」</p> <p>1. 나의 이야기 저장소 2.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 지도' 그리기 3. 책 속 내용 확장하기 4. 연계 활동: 슈퍼히어로 도채비에게는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p>	14
7~8		<p>「복수의 삼각형-안개 낀 섬의 초대」</p> <p>1. 나의 이야기 저장소 2. 인물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 정리하기 3. 책 속 내용 확장하기 4. 연계 활동: 아기업개의 사연부터 트롤리 딜레마와 자율주행 자동차까지</p>	19
9~10		<p>「고려 걸그름 잔혹사」</p> <p>1. 나의 이야기 저장소 2. '비교 그래픽 조직자'로 이야기 정리하기 3. 책 속 내용 확장하기 4. 연계 활동: 춤에서 느껴지는 우리 문화</p>	27
11~12		독서 후	<p>신화 속 인물 시로 구현하기</p> <p>1. 신화 조사하기 2. 신화 속 인물을 설명하는 단어 적어 보기 3. 신화 속 인물을 시 구현해 보기</p>

1. 『미래로 소환되었습니다』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책 구조를 살펴보며, 책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적어 봅시다.



① <보기>의 표지를 보며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예상하고, 파악한 정보들을 정리해 봅시다.

▶ 예상 중심 단어 정리하기

② 『미래로 소환되었습니다』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들에 대해 알고 있나요?

중심 단어들을 적어 보았나요? 혹 단어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적은 단어들의 뜻을 쓰고, 사전을 활용하여 정확한 의미를 찾아 적어 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	사전을 통해 조사한 단어의 의미

1. 『미래로 소환되었습니다』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책 놀이를 통해 알아봅시다.

<펼쳐라, 책!> 활동 방법

- ① 4~6명씩 등글게 모여 앉습니다.
- ② 한 명씩 돌아가며 『미래로 소환되었습니다』 책을 무작위로 펼칩니다.
- ③ 펼친 양쪽에 인물의 이름이 몇 번 나왔는지 기록지에 적습니다.
- ④ 무작위로 펼친 양 쪽에서 인물이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승자입니다.

<기록지에 적는 인물의 기준>

- 펼친 쪽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참여자'는 인물로 기록됩니다.
- '사람, 신화 속 인물, 동물' 모두 인물로 인정합니다.
- 이야기를 서술하는 화자가 1인칭일 경우, '나'도 인물에 포함합니다.
- 같은 인물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와도 1명으로 셉니다.
-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닌 단체(우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시: '같은 반 여자애들', '아이들' 등

미유는 분노했다.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집에 들어가
엄마가 오기만 기다렸다. **미유의 아빠는 이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인물로 세지 않습니다.**
미유 부모님은 딸뎡이다. **아빠**는 회사에 다니고 엄마는 대형다
트에서 일한다. 미유는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오기를 기다렸
다가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엄마** 또한 화를 냈다. 엄
마는 그 즉시 **빈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신미유 집인데요. 조빈 어머니 맞으시죠?"
엄마는 미유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엄마의 목소리
는 처음에 날이 서 있었지만 점점 누그러졌다.
"미유야, 전화 받아. 빈이 사과한다."
엄마가 미유에게 전화를 건넸다.
"미유야, 미안해. 아까 내가 심했지? 라방에서 찰피를 당해서 그
랬어. 미안해"
빈은 정말 미안해 하는 말투였다. 좀 울먹이는 것도 같았다. 미유
는 바로 마음이 풀렸다.
"아닌 나야말로 미안해. 갑자기 전화 받고 놀랐지?"
"그래, 우리 화해하자! 내가 떡볶이 사 줄게. 진짜 맛있는 집 알려
든 지금 바로 나올래?"
빈은 떡볶이집 주소를 알려 주었다. 미유는 기분이 좋아져 골장
집을 나섰다.

18

떡볶이집에는 빈이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빈은 혼자가 아니었
다. 같은 **반 여자애들** 모두와 함께였다.
"다들 언제 왔어?" **단체**는 **인물로 세지 않습니다.**
미유가 살갑게 인사하며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은 대
담하지 않았다. 서로 대화하느라 바빴다.
"이 집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어?"
미유는 포크로 떡볶이를 집어 먹으며 다시 말을 걸었다. 아이들
은 그런 미유를 상대하지 않았다. 미유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
만 떡볶이가 맛있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미유는 등교하자마자 다시 한번 무시당하는 걸 경
험했다.
"좋은 아침!"
아무도 미유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뭔가 이야기를 하
다가 말을 뚝 멈추고는 가만히 미유를 바라보았다.
미유는 또다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했다. 아침이니까, **신생남**이 왔으니까 그런 거겠거니 했다. 그러나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의 태도에 변함이 없자 불안해했
다. 아이들은 자기네끼리 신나게 대화를 하다가도 미유가 말을 걸
면 입을 다물었다.

999번을 죽어야 귀신이 된다 19

2. 책 놀이 <펼쳐라, 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활동 기록지에 정리해 봅시다.

▷ 활동 기록지

참여자	펼친 쪽수	양쪽에 등장한 인물의 이름	펼친 쪽의 소설 제목이 무엇인가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미래로 소환되었습니다』가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기대되나요? 책 읽기 전의 설레는 마음과 이번 독서 활동에 대한 나의 다짐을 적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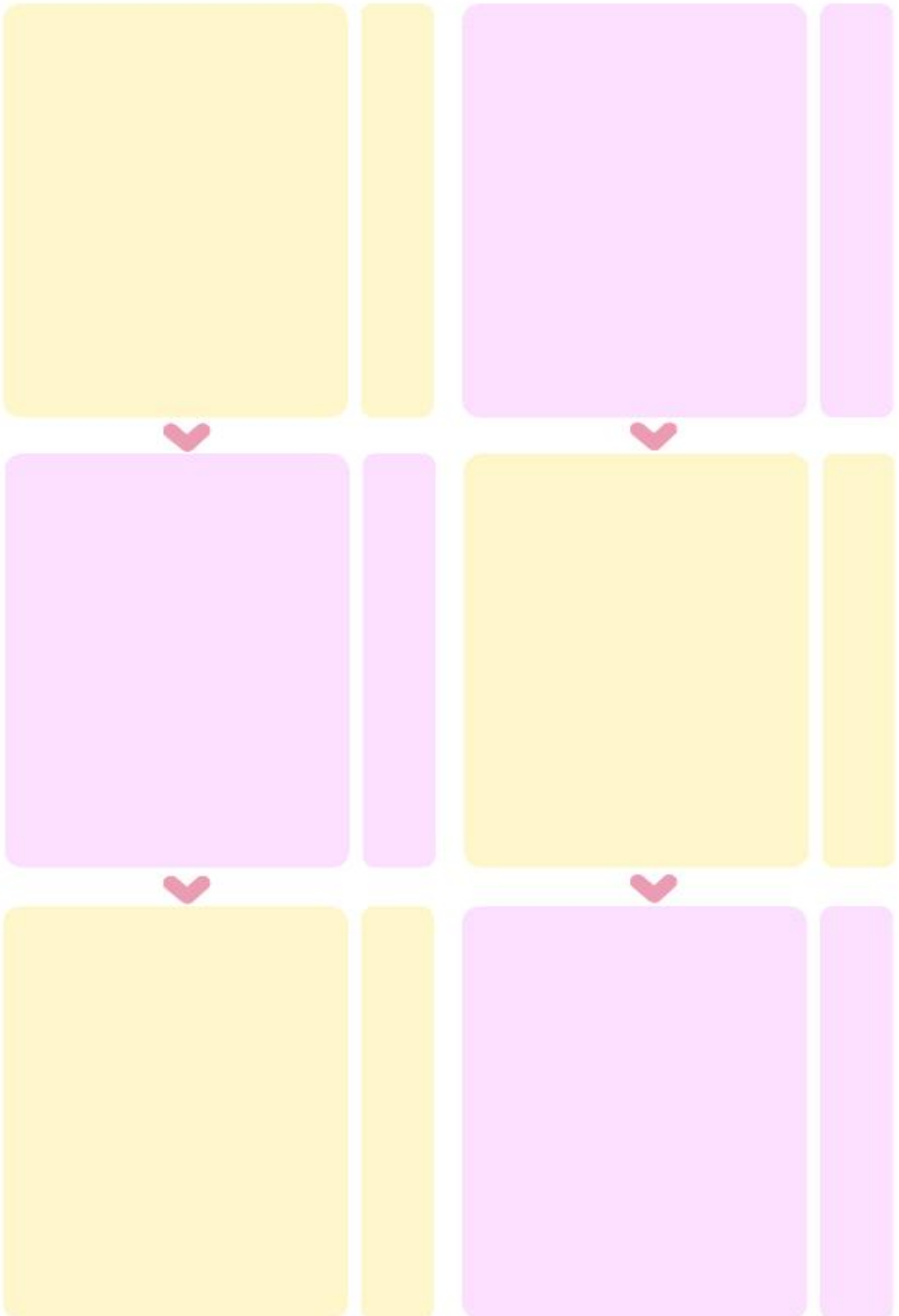
1. 나의 이야기 저장소

「999번을 죽어야 귀신이 된다」를 다시 살펴보며 <나의 이야기 저장소>를 채워 봅시다. 채운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감상을 공유해 보세요.

나의 이야기 저장소					
기억에 남는 장면/문장 필사하기 ()쪽					
가장 기억에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 단어 나열하기					
소설을 읽으며 어떤 생각(마음)이 들었나요?					
독서 질문과 나의 의견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독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				

2. '타임라인 그래픽 조직자'로 이야기 정리하기

* 아래의 활동지를 돌려서 사용하세요.



3. 책 속 내용 확장하기

『삼국유사』에는 ‘비형랑 신화’가 있습니다. 비형랑은 귀신, 신라 진지왕의 자식입니다. 죽은 왕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도화부인을 임신시켜 낳은 아들이지요. 그리하여 반신, 즉 반만 신인 존재라 불립니다.

비형랑이 귀신의 아이라는 소문이 나자, 진평왕은 흥미를 느끼고 비형랑을 불러 벼슬을 줍니다. 비형랑은 반신답게 기이한 일들을 해냅니다. 밤마다 궁궐을 빠져나가 노는가 하면, 귀신을 부려 하룻밤 만에 다리를 완성시키고, “괜찮은 인물 없냐”는 왕의 질문에 귀신에게 벼슬자리를 주라고 추천합니다. 그 귀신이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길달’입니다.

귀신 길달은 한 벼슬아치의 양자가 되어 흥륜사 남쪽에 문루를 짓고, 그곳을 지키며 매일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에는 길달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길달은 귀신인지라, 이런 인간적인 생활이 힘들었는지 여우로 변해 도망을 칩니다. 비형랑은 이런 길달을 곧이곧대로 보내 주지 않고 귀신을 보내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저는 비형랑 신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으음. 귀신이면 이미 죽은 존재인데, 또 죽을 수가 있나?’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막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 작가의 말 중에서

- ① 「999번을 죽어야 귀신이 된다」의 작가는 ‘이미 한 번 죽은 귀신이 또 죽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번 죽은 귀신이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 ② 이미 죽은 존재가 또다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③ 이 소설에는 귀신 길달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길달은 왜 999번을 죽고 싶어 하나요? 아래의 빈칸에 적어 봅시다.

<보기>

“나는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도망치려다 별을 받아서 이런 꼴이 됐어. 내 전 주인은 비형랑이라고 해. 혹시 들어 본 적 있어?”

“모르겠어.”

“온갖 잡귀를 몰아내는 벽사의 신 비형랑을 모르다니…… 아무튼 나는 주인 몰래 도망치려다가 실패했어. 그 죄로 999번을 죽어야 본래의 내 모습을 되찾는 별을 받았어.”

“그렇다면 이게 네 본래의 모습이야? 이제 다 죽었어?”

“그럴 리 없잖아.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길달이 불만스러운 듯 말했다.

“999번 죽으려면 한참 멀었어. 한시라도 빨리 제대로 죽는 게 내 소원이야.”

“죽는 게 소원이라고?”

- 「999번을 죽어야 귀신이 된다」 중에서

④ 길달과 미유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길달에게 ‘죽음’이란?	미유에게 ‘죽음’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일 • 길달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상태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이 끝나는 일 • 무서운 일 등등

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4. 연계 활동: 앞으로의 이야기

<보기>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길달과 미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어지게 될 뒷이야기를 조원들과 한 문장씩 덧붙이며 상상해 보세요.

<보기>

일주일 후 점심시간, 미유는 밥을 먹은 후 옥상에 올라와 있었다. 난간에 몸을 기대자 주머니에 들어가 있던 햄스터 길달이 쪼르르 나왔다. 난간에 드러누운 길달은 짧은 팔다리를 움직이며 햇빛을 쬐었다.

“역시 햇빛이 최고구먼.”

미유가 그런 길달을 손가락으로 살살 만지며 말을 걸었다.

“이제 빈이 정신을 차릴까?”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하지만.”

“하지만?”

“또 말을 안 들으면 또 교훈을 줄 거야.”

“그래도 안 바뀌면?”

“다시 한번 죽어 줘야지. 몇 번이고 같은 일을 겪으면 언젠간 정신을 차리겠지. 인간은 파블로프의 개와 별 다를 게 없는 동물이니까.”

미유는 길달의 말에 한기를 느꼈다.

“너, 좀 무섭다.”

“나는 요괴야. 무서운 게 당연하지. 아, 앞으로 298번을 또 어떻게 죽으면 좋나.”

“신미유! 거기서 뭐 해! 학폭위 사전 면담 시작해!”

등 뒤에서 여진이 불렸다. 미유는 몸을 돌려 “금방 갈게!” 하고는 길달에게 손을 뻗었다. 길달은 재빠르게 쪼르르 미유의 팔 위를 달려 조끼 주머니에 들어가더니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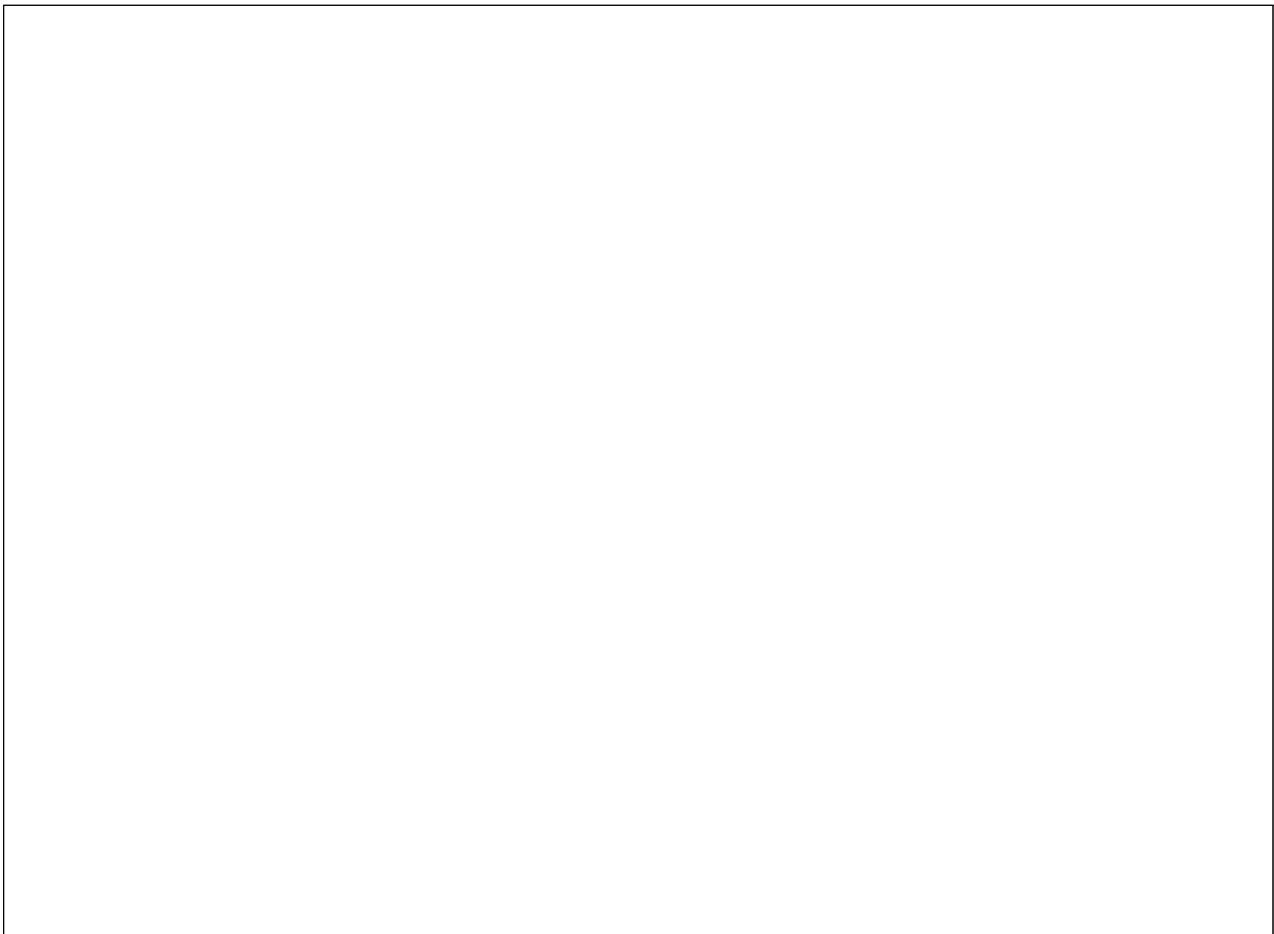
“점심은 해바라기씨 초콜릿으로 부탁해!”

“알았어.”

미유는 길달의 말에 숨죽이고 웃으며 생각했다.

‘길달, 너는 요괴치고 너무 귀여워.’

- 「999번을 죽어야 귀신이 된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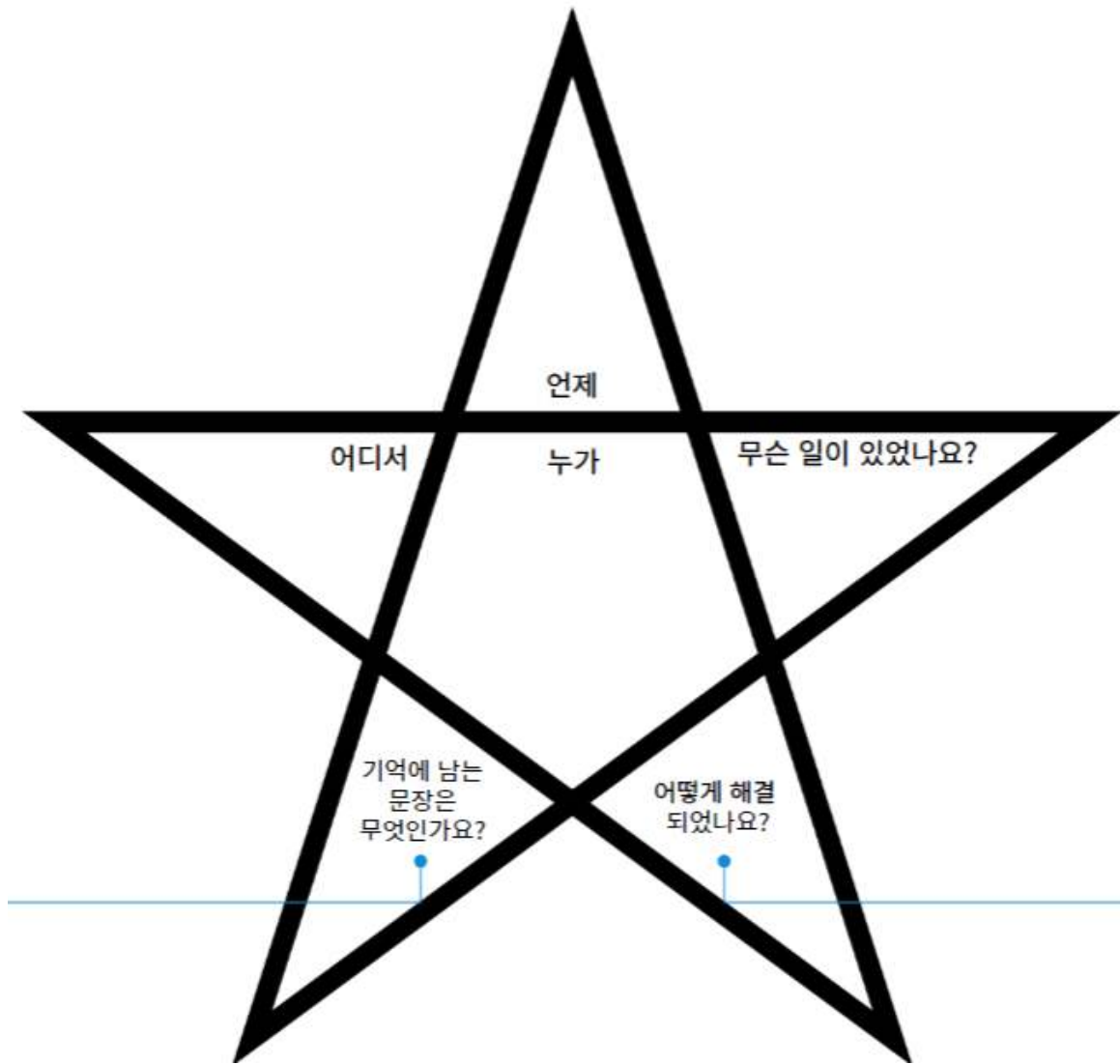
1. 나의 이야기 저장소

「신화 관리청-도채비 요원의 대모험」을 다시 살펴보며 <나의 이야기 저장소>를 채워 봅시다. 채운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감상을 공유해 보세요.

나의 이야기 저장소					
<p>기억에 남는 장면/문장 필사하기</p> <p>()쪽</p>					
<p>가장 기억에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p>					
<p>핵심 단어 나열하기</p>					
<p>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생각/마음이 들었나요?</p>					
<p>독서 질문과 나의 의견</p>	<p>(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독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p>				

2.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 지도' 그리기

주인공인 '도채비'를 중심으로 '이야기 지도'를 그려 봅시다.



3. 책 속 내용 확장하기

‘신화(神話)’는 글자 그대로 ‘신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한 치 앞도 모르던 시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절대적 존재인 신에 의지하였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불행과 행운 그리고 알 수 없는 주변의 현상들을 신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납득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오랜 기간 신화는 사람들에게 신들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징표이자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간이 우주로 나가서 달에 발자취를 남기고 생명의 비밀들을 풀어내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신화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미래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자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역시 단군신화를 비롯해 여러 가지 신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과 더불어 살고, 알에서 태어나거나 새나 동물로 변신하는 능력을 가진 영웅들의 이야기도 있고, 도깨비를 비롯해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도깨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있고 가죽옷을 입었으며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화에 나오는 도깨비는 일정한 형태로 존재해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물건, 특히 빗자루가 도깨비로 변신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 주변에 그만큼 많은 도깨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 작가의 말 중에서

① 신화 속 도깨비는 어떤 모습인가요?

② 여러 신화 속 인물 중에서 도깨비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③ 옛사람들에게 도깨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④ 「신화 관리청-도채비 요원의 대모험」에 등장한 요괴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요괴와 달리 새로운 종류의 요괴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요괴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91쪽)

“나는 저승계 요괴가 아니야. 사악한 인간들의 마음이 뭉쳐져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 난 양쪽이 맺은 협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95~96쪽)

도금비는 요괴의 입에 박힌 도깨비방망이를 뽑은 뒤 풀 스윙으로 요괴 머리를 후려쳤다. 머리가 반쯤 박살난 요괴가 옆으로 쓰러지자 천천히 담임선생님으로 돌아왔다. 얼른 담임선생님의 상태를 확인한 도금비가 주변을 살피며 웨어러블 워치로 국장에게 연락을 했다.

- 어떻게 됐어?
- 요괴 처치했어요.
- 처리반 보낼까?
- 아뇨, 선생님으로 돌아왔어요.
- 그래? 원래 사람이었던 말이야?

국장의 물음에 도금비가 대답했다.

- 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인데 요괴의 숙주가 되었던 거 같아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턴입니다.
- 아, 이거 원래 날뛰던 요괴들도 골칫거리인데 말이야.
- 어쨌든 이 건부터 해결해야죠.
- 사실상 해결됐어.
- 네?
- 조신왕의 스트레스 지수가 600 아래로 떨어졌어.
- 그렇게 빨리요?
- 전문가 얘기로는 강력한 최면에 걸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던 것 같대. 현재 그 최면은 풀렸고 말이야.
- 새로운 요괴의 탄생이군요.

도금비의 얘기에 국장의 한숨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 슈퍼컴퓨터의 분석도 비슷해. 앞으로 비슷한 요괴들이 더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 그래서 긴급 대책 회의를 준비하고 있어. 어서 돌아와서 참석해야겠어.

- 「신화 관리청 - 도채비 요원의 대모험」 중에서

4. 연계 활동: 슈퍼 히어로 도채비에게는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요괴와 도채비의 싸움 이후, 학교의 건물은 멀쩡했을까요? 공격하면서 날린 비늘 조각들뿐 아니라 뿔 표창, 그리고 그 충격으로 학교의 건물들이 많이 망가졌을 것 같아요. 슈퍼히어로처럼 학교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건물을 부순 도채비에게 건물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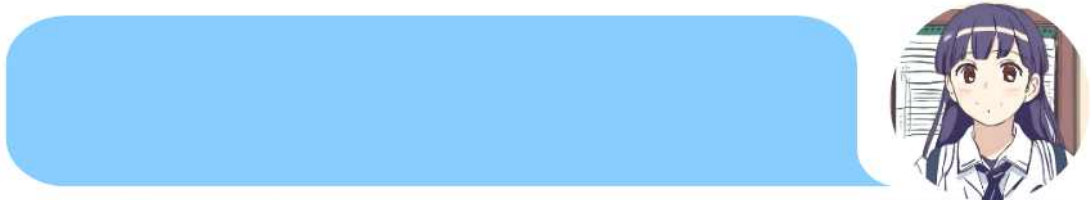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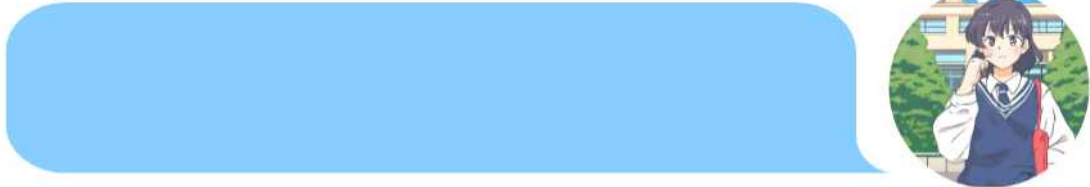
1. 나의 이야기 저장소

「복수의 삼각형-안개 낀 섬의 초대」를 다시 살펴보며 <나의 이야기 저장소>를 채워 봅시다. 채운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감상을 공유해 보세요.

나의 이야기 저장소					
<p>기억에 남는 장면/문장 필사하기</p> <p>()쪽</p>					
<p>가장 기억에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p>					
<p>핵심 단어 나열하기</p>					
<p>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생각/마음이 들었나요?</p>					
<p>독서 질문과 나의 의견</p>	<p>(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독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p>				

2. 인물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 정리하기

아기업개와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복수의 삼각형-안개 낀 섬의 초대」의 줄거리를 정리해 봅시다.
(참고. 아래는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3. 책 속 내용 확장하기

‘마라도 전설’에 등장하는 양부모의 후손이 제주 모슬포에서 중학생으로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 어질까? 그런 상상을 하며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어요. 분명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는 아기업개(신해랑)가 그 후손(이현 후)을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외로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을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현후**는 자기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텐데, 과거에서 온 소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복수의 삼각형-안개 낀 섬의 초대」를 쓰게 되었어요.

복수와 사랑, 희생과 구원은 상반된 말 같지만 긴밀하게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타인에 대한 ‘분노’보다는 ‘공감’이란 생각이 들어요. 작은 섬의 여신은 우리에게 그런 복합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러 온 게 아닐까요? 아니면 진짜 큰 한 방의 복수를 꿈꾸며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작가의 말 중에서

① 아기업개(신해랑)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이었나요?

② 섬에 혼자 남겨진 아기업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③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후에게는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었나요?

④ <보기>와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해 봅시다.

<보기>

“줄곧 이 팔찌가 생각났어. 엄마가 열 살 생일에 만들어 주신 선물이야.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 유일하게 양부모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니까.”

“복수하려고 나타난 거 아니었어?”

불쑥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수’라는 개념이 산산이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 「복수의 삼각형-안개 낀 섬의 초대」 중에서

Q. 아기 업개(신해랑)가 현후 앞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아기업개에게 ‘팔찌’는 어떤 의미일까요?

Q. 아기업개와 대화를 한 뒤 현후는 ‘복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⑤ 드라마, 영화, 구전 동화 중에는 나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인물들이 복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수’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이 입은 해를 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수’는 꼭 필요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4. 연계 활동: 아기업개의 사연부터 트롤리 딜레마와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① 선장과 해녀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아기업개를 마라도에 두고 갑니다. 만약 내가 선장이나 해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숨겨진 진실>

해녀: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돌아가요.

선장: 그럼시다. 이번 물질은 아주 풍년이네요.

해녀와 선장은 섬을 떠날 준비를 했다. 닻을 올리고 배를 띄우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파도는 성난 거인처럼 점점 드높고 거칠어졌다.

해녀: 잔잔해지면 가야겠어요.

떠나는 것을 포기하고 배를 묶어 놓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다시 배를 띄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도가 거칠어지며 성을 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다. 식량은 이미 바닥났고 해녀와 선장의 근심은 점점 커졌다.

선장: 바다의 용왕이 노한 게 틀림없어.

그러던 어느 날 밤, 해녀와 선장은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백발노인이 꿈에 나타나 말했다.

백발노인: 이 섬은 예로부터 신령님이 지켜주는 섬이다. 함부로 사람이 드나들 수 없고, 이 섬의 생산물을 제멋대로 가져갈 수 없다. 당신들은 천벌받아 마땅하다. 허나 당신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한 가지 있다.

해녀, 선장: 그게 무엇입니까?

백발노인: 아기업개를 제물로 두고 떠나도록 하라.

해녀와 선장은 혼인을 하고 한동안 아이가 없어 길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딸처럼 키웠고 그 아이가 벌써 열 살이 되었다. 몇 달 전에는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겨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양부모가 바닷가에 나가면 딸처럼 키운 소녀가 아기를 돌봤다. 아기를 돌보는 처녀, 즉 그 소녀가 아기업개인 것이다.

선장: 그 아이는 아기업개지만 우리에게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녀: (흑흑.) 그건 할 수 없어요. (오열한다.)

꿈을 꾸던 다음 날, 해녀와 선장은 아기업개와 아기를 배에 태우고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잔잔했던 바다에 또다시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배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해녀: (슬픔을 억누르며) 얘야, 저기 바위 위에 놓아둔 걸렁이(아기 엮는 형겅 띠)를 가져오너라.

아기업개는 양엄마를 의심하지 않고 걸렁이를 가지러 갔다. 그사이 바다는 잔잔해졌고 배는 제주 본섬을 향해 무심하게도 순풍순풍 달아났다. 그렇게 아기업개는 섬에 혼자 남게 되었다.

아기업개: 가지 맙서. 날 두고 가지 맙서. (통곡한다.)

- 「복수의 삼각형-안개 낀 섬의 초대」 중에서

② 만약 내가 '전차 기관사'라면 ㉠그대로 달려 나간다. 혹은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간 측선 철로로 빠져 나간다.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속 100킬로미터의 전차를 운전하고 있던 기관사가 저 멀리 앞쪽에 철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다섯 명을 발견했습니다. ㉠작업자들을 발견하자마자 전차를 멈추려고 했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속도로 계속 가다가는 작업자가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간 측선 철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작업자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방향을 바꿔 측선 철로로 들어서면 한 명은 죽고 다섯 명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차 기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③ 내가 '구경꾼'이라면 ㉠ 그대로 달려 나간다. 혹은 ㉢ 덩치 큰 남자를 민다.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다리 위에 서서 전차가 지나가는 모습(②번의 상황)을 지켜보는 구경꾼입니다. (이번에는 측선 선로가 없고 오직 한 방향의 철로만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전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저 앞에 있는 다섯 명을 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르던 당신은 옆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덩치 큰 사람을 밀어서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 위로 떨어뜨리면, 덩치 큰 남자는 죽겠지만 다섯 명의 작업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덩치 큰 남자로 전차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당신이 직접 뛰어든까 고민했지만, 여러분은 너무 작아서 전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경꾼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④ 앞선 질문 ①, ②, ③에서 어떤 선택을 했나요? 딜레마 상황에서 나의 선택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⑤ ‘아기업개’ 전설에서처럼 우리는 여전히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장 우선해야 할까요? 특히 최근에는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명과 관련된, 더 고차원적인 딜레마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걸까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윤리성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Q. 자율주행 자동차란 무엇인가요?

Q.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을 위해 윤리성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을 위한 윤리성 기준을 정리해 봅시다.



1. 나의 이야기 저장소

「고려 걸그룹 잔혹사」를 다시 살펴보며 <나의 이야기 저장소>를 채워 봅시다. 채운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감상을 공유해 보세요.

나의 이야기 저장소					
기억에 남는 장면/문장 필사하기 ()쪽					
가장 기억에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 단어 나열하기					
소설을 읽으며 어떤 생각(마음)이 들었나요?					
독서 질문과 나의 의견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독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				

2. '비교 그래픽 조직자'로 이야기 정리하기

한비가 살아가고 있는 고려시대의 삶과 시간여행으로 경험한 천 년 후 미래의 삶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세요.

	↔	

3. 책 속 내용 확장하기

우리는 기존에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중략)

동화나 전설에서 선녀는 아름답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선녀를 뽑을 때 키나 외모에 대한 조건을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선발된 자와 떨어진 자의 차별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또 일부 어른들은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세계화의 물결이 몰아치는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불편이 존재하는 어느 분야든지 문제를 서로 토론하고 합의한다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 작가의 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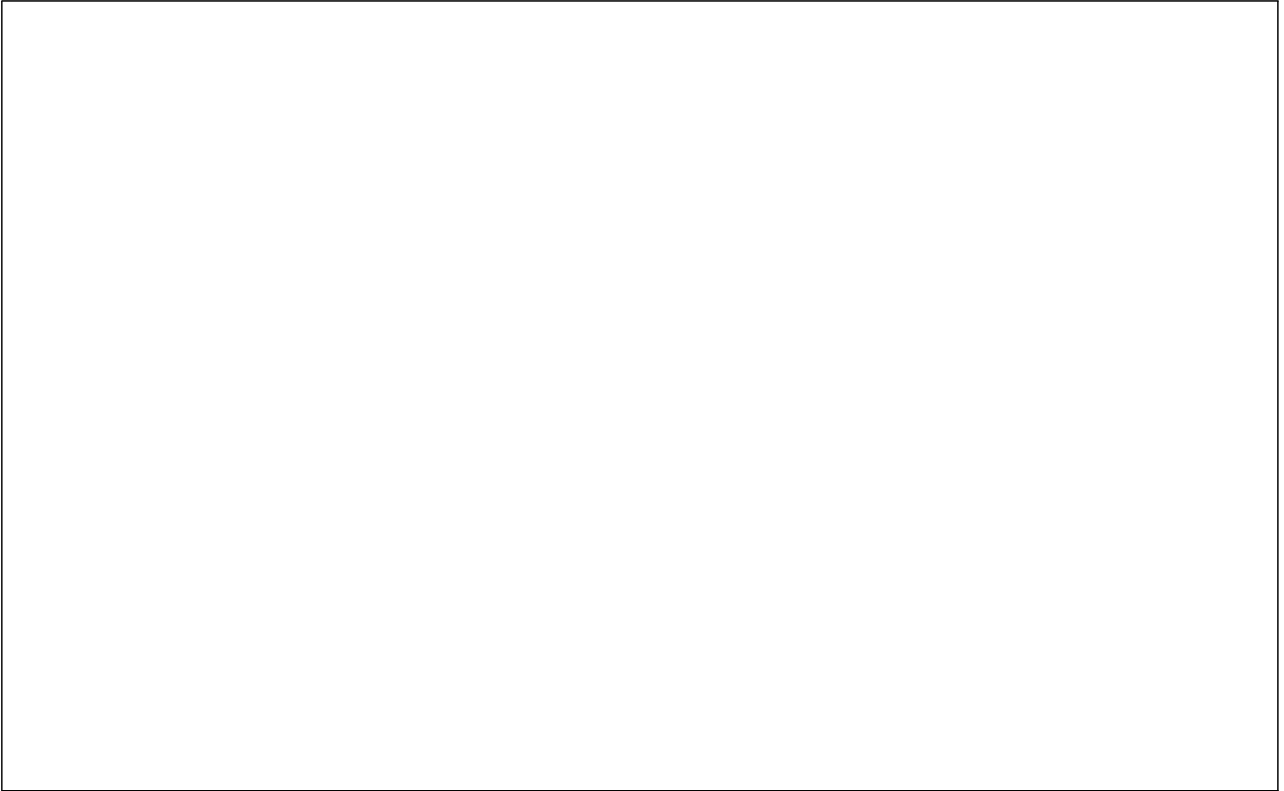
- ① 『고려 걸그룹 잔혹사』의 작가가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불합리한 처사’란 무엇일까요? ‘불합리’ ‘처사’에 대한 의미를 각각 찾아보고 소설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의미
불합리	
처사	
소설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불합리한 처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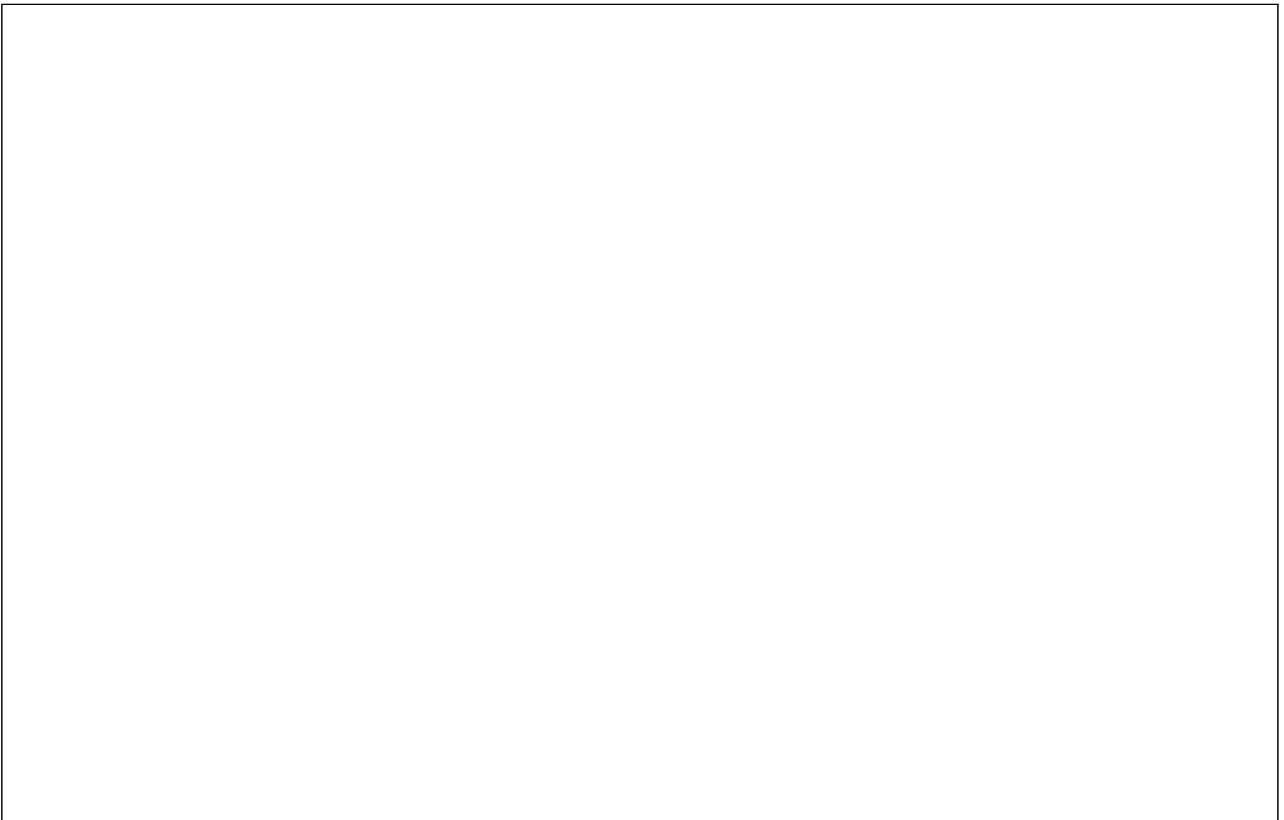
- ② 소설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처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천 년 전, 한비가 사는 시대	천 년 후, 고려여고 학생들이 살아가는 시대

③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차별과 불편이 담긴 '불합리한 처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④ '불합리한 처사'가 사라진,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3. 연계 활동: 춤에서 느껴지는 우리 문화

소설에서 화란이는 한비에게 나비춤과 승무를 배우고 싶다고, 전통 무용과 현대의 음악을 접목하여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우리 춤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내가 선택한 전통춤	
_____을(를) 선택한 이유	
전통춤 _____ 소개하기	
_____영상 찾아보고 감상 기록하기	

11~12차시 독서 후 활동 - 신화 속 인물, 시로 구현하기

『미래로 소환되었습니다』에 등장한 다양한 신화 속 인물 중 한 인물을 선정하여 조사해 보고, AI 이미지로 상상의 모습을 구현해 봅시다.

1. 신화 조사하기

내가 선정한 신화 속 인물	
<p>책에 등장한 신화 속 인물의 설명을 찾아 적어 보기</p> <p>_____ 쪽</p>	
<p>직접 조사한 신화 속 인물의 이야기 정리하기</p>	
<p>조사한 자료의 출처 남기기</p>	

지도 ti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디지털제주문화대전' 등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2. 신화 속 인물(예: 도깨비)을 설명하는 단어 적어 보기

귀여운	작은	고리타분한	우울한	용감한
착한	다혈질인	아름다운	정의로운	예민한
외향적인	고집이 센	솔직한	털복숭이	성급한
자비로운	재능이 있는	친절한	헌신적인	꼼꼼한
근면한	무례한	내향적인	활동적인	관대한

3. 신화 속 인물(예: 도깨비)을 AI로 구현해 보기

AI로 구현한 신화 속 인물의 이미지	AI에 입력한 신화 속 인물에 대한 설명(프롬프트)